

서울시, 공익사업 감정평가 간소화… 주택공급 속도낸다

공익사업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
SH공사 동의 없이 절차 생략 가능
“시민 주거 안정에 도움될 것”

서울시가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추진 속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원활한 주택공급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을 본격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공익사업 대상 토지 보상액 산정은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시·도가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son@

각각 추천한 총 3인이 감정평가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사업시행자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인 SH공사일 경우, 시와 SH를 동일 기관으로 인식해 시가 감정

평가사 2인을 추천하는 것처럼 오해가 불거져 토지소유자의 불신이 지속돼 왔다.

이에 시는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서울특별시 감정평가업자 추천지침’ 제7조 제4호 ‘감정평가업자 추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적용하는 세부 기준을 마련, 시·도 추천 감정평가사를 생략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SH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면적의 2/3 이상 소유자와 전체 소유자 과반수 이상이 ‘감정평가업자 추천 생략 요청 동의서’를 제출하면, 시·도 추천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사

2인만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번 개선안은 SH공사 동의 없이 토지소유자 동의만으로도 생략 절차가 가능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이 같은 개선으로 보상금 산정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공익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규제철폐안 68호 공익사업 추진 시 감정평가 추천 방법 개선으로 보상금 산정 투명성을 높이고 절차는 간소화해 공익사업 추진에 속도감을 더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서울교육청, ‘K콘텐츠’ 매개 국제교류 활성화

美 디케이터 학생단 국제공동수업
애틀랜타 한국어 채택교 교원 연수

서울시교육청이 미국 현지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매개로 한 국제교류에 속도를 내며, 한국어와 서울 교육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미국 위싱턴주의 디케이터 고등학교 학생단이 서울을 방문해 서울 학생들과 함께 국제공동수업 및 대면 문화교류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미국 동부 애틀랜타에서는 현지 한국어 채택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수법 및 에듀테크 활용 연수도 실시한다.

미국 위싱턴주 페더럴웨이에 위치한 디케이터 고등학교(Decatur High School)의 한국어반 소속 학생 8명과 교사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 방문단은



서울시교육청 본관

/메트로신문 DB

7일부터 11일까지 서울의 영파여자중학교와 서울국제고등학교를 방문해 국제공동수업과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에 참여한다.

이번 방문으로 미국과 서울의 학생들은 한국 전통문화 체험, K-POP 댄스 수업, 체육대회 등을 통해 교류하며, 서울국제고등학교의 영어 및 인문학 교과

공동수업에도 함께 참여한다.

미국 애틀랜타에서는 서울시교육청과 애틀랜타한국교육원이 공동으로 10일부터 11일까지 ‘미국 동부권 한국어 채택교 교원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부 ‘한국어교육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시범교육청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연수는 미국 내 한국어교육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된다.

연수 대상자는 미국 동부권 3개 한국교육원 소속 한국어채택교 교원 38명(애틀랜타한국교육원(26명), 시카고한국교육원(8명), 위싱턴한국교육원(4명)이다. 이들은 한국어교수법을 비롯해 에듀테크 활용 방법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에듀테크 활용 교육은 서울시교육청 글로벌 디지털 교육서도 교사단이 참여해 실제 교육현장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에듀테크 활용법을 전파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제 43회 대한민국 연극제’ 개막식 기념사진.

/인천광역시

인천시, 27일까지 ‘대한민국연극제’ 대장정

시민연극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인천에서 17년 만에 개최되는 제43회 대한민국연극제가 지난 5일 개막식을 통해 대장정의 문을 열었다. 인천광역시와 (사)한국연극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7월 27일까지 23일간 상상플랫폼을 비롯한 인천 전역의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개막식이 열린 상상플랫폼에는 연극인과 시민 등 약 1500명이 몰려 열띤 분위기를 이뤘다.

본식 전 진행된 퍼포먼스 ‘항구 사람들’에서는 자원활동가와 연극인 110여 명이 유랑극단과 항구 노동자, 예술가 등으로 분장해 개항장 시대의 인천을 무대 위로 소환했다. 이어진 퍼포먼스 ‘희망의 땅, 인천’은 황해도에서 인천으

로 향한 이주민의 여정을 담았다.

1983년 시작된 대한민국연극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연극 축제로, 이번 행사는 ‘연극, 인천에 상륙하다’를 슬로건으로 삼아 인천의 해양 정체성과 예술성을 결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본선 경연과 함께 ▲시민연극제 ▲크로스페아프르페스타 ▲북마케도니아 합동공연 ▲국제연극포럼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진행된다.

유정복 시장은 “대한민국연극제가 인천에서 다시 열려 매우 뜻깊다”며 “문화와 예술이 일상이 되는 글로벌 튼튼 도시를 향해 인천이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연극을 통해 시원하고 풍성한 여름을 보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인천=김학철 기자 press412@

서울시 “수도요금 감면 받으세요”

전자고지·자동납부 이벤트

서울시가 수도요금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모두 신청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11월까지 매월 추첨을 통해 선물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해당 기간 동안 전자고지와 자동납부를 신규로 신청한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응모된다. 또한 매월 1000명씩 총 5000명을 추첨해 5000원 상당의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상수도 요금의 1%를 감면받을 수 있다. 최대 1000원까지 혜택이 주어지며, 자동납부까지 함께 신청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3000원이 추가로 감면된다.

/이현진 기자

교육장협의회,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논의

양일간 하계 정기총회·워크숍

전국교육장협의회는 8일부터 9일까지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2025년 전국교육장협의회 하계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전국교육장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근거해 구성된 협의체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산하 176개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각 지역의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교육장들이 모여 교육자치의 실행력을 강화하고, 공통의 교육 과제를 함께 모색하는 정책 협력 플랫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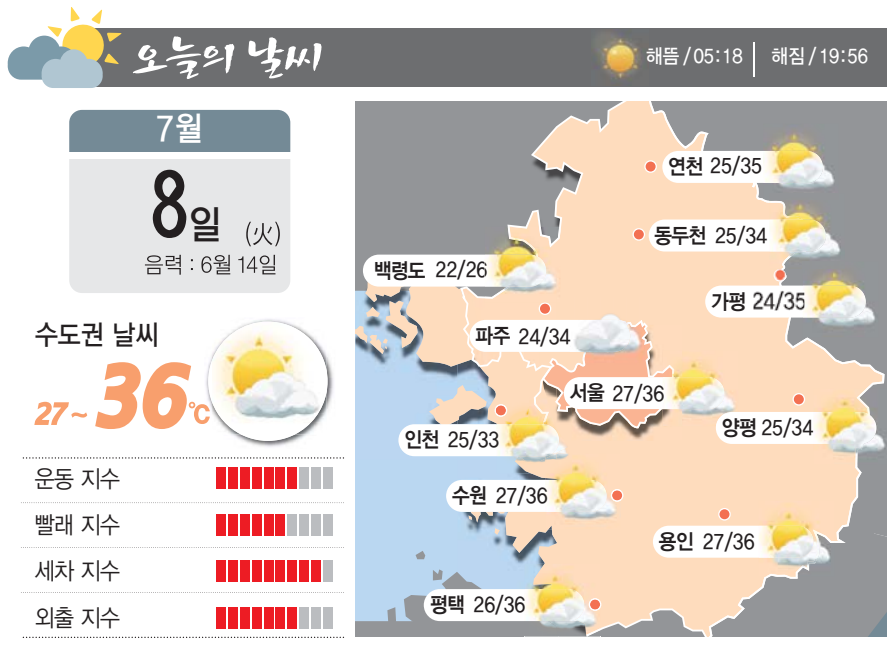
이번 워크숍은 오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학생맞춤통합지원

법’의 현장 실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해당 법의 취지를 학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전략을 모색한다. 특히 ▲교육지원청의 역할 정립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 체계 강화 ▲다기관 연계 사례 공유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워크숍 1일차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회의 축사로 시작해 법 제정 취지 공유, 교육부 정책 설명, 시범교육지원청과 선도학교 사례 발표, 실행 전략 논의 등으로 진행되며, 2일차에는 교육장의 역할을 정리하고 국가 차원의 정책 제안을 모색하는 논의가 이어진다.

/이현진 기자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메트로  한줄뉴스

▲트럼프 대통령, 관세 서한 발송… 협상 대상국 압박
▲中, 트럼프 관세 ‘뒷문’으로 빠져나가… 동남아 우회 수출 급증

▲푸틴 “브릭스, 세계경제 40% 차지해 G7 못들아… 다국적 세계 눈앞”
▲“무례하고 몰상식해”… 스위스 수영장, 프랑스 인 출입 금지



▲“남편·아내 아니고 배우자”… 홍콩, ‘동성부부’에 공공주택 문 개방
▲이스라엘, 예멘 홍해 호데이다항 폭격 계속… “테헤란처럼 만들겠다”

/사진 뉴스스